

# 아세아電子會議 및 AEU總會參加報告

本 學 會 會 長 李 鍾 珏

1977年 9月 21일부터 27일까지 滿一週日間に 걸쳐 테헤란에서 이란政府 主催로 아세아電子會議(AEC) 및 아세아電子聯盟(AEU)總會가 開催되었는데, 이 AEC는 第9次會議이며, AEU總會는 第5次會議에 該當한다. 그리고 同會議에 우리나라에서도 3名의 代表를 派遣하게 되어, 本人은 AEU의 正會員인 本學會를 代表하여, 電子工業界를 代表한 金星電氣(株)의 具貞會社長 및 本會前會長이며 現AEU副會長인 大韓通信(株)의 申龍徹副社長과 함께 參席하게 되었다. 한편 具社長을 隨行한 金星電氣의 金建錫課長이 同會議에 함께 參加하여 代表의 活動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

우리 代表團一行은 9月 20日 午後 테헤란에 到着하여, Intercontinental Hotel에 旅裝을 unpack 후, 即時 同會議의 會議場인 Research Centre of Ministry of Labour에 가서 登錄을 하고, 現地 韓國大使館에 代表의 到着을 通報하였다. 그 다음 날 確認된 事實이지만, 今般 會議에 參加한 國家와 國際機構의 名單 및 代表數는 다음과 같다.

濠洲(3名), 印度(3名), 인도네시아(5名), 이란(21名), 이라크(3名), 日本(9名), 요르단(1名), 韓國(4名), 말레이지아(2名), 比律賓(5名) 싱가포르(3名), 스리랑카(2名), 泰國(1名), UNIDO(1名), UNESCO(2名).

主催國인 이란의 代表는 21名으로 되어 있지만, 公式會議席上에는 4~5名만이 參席하였다.

테헤란市는 海拔 約 4,000ft의 高原地帶에 位置한 人口 約 400萬의 樹木이 없는 山으로 둘러싸인 깨끗한 都市로서, 道路가 잘 整備되어 있으며, 年間 降雨量이 約 100mm에 不過한 몹시 乾燥하고 더운 半沙漠地帶에 있지만, 地下水를 利用하여, 街路樹를 茂盛케 하고, 綠地帶나 庭園樹가 제법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이 매우 神奇하게 生覺되었다.



會議 첫날인 9月 21日에는 이란首相에 依한 ARYAMEHR 이란皇帝의 冕辭朗讀, 이란 郵政長官의 歡迎辭, AEU를 代表한 日本의 濱田博士의 人事말이 있었으며, 會議議長選出에 들어가 이란首席代表 H.N.Nouri氏를 議長으로 選出하였다. 그리고, 1975年 濠洲멜보른에서 開催되었던 第8次 AEC에서 採擇된 몇가지 案件에 對한 經過報告 등이 있었다.

이날 午後부터 參加國代表가 各己 準備해온 country report에 따라 自國의 電子工業 및 通信現況을 紹介하는 報告會와 이에 對한 質疑應

답이 始作되었다.

會議 둘째날인 22日 午前에도 各國 代表의 country report에 따른 報告會가 계속되었는데 이 때, 本人이 約 20分間에 걸쳐 韓國에 관한 報告를 하였다. 參加國이 모두 韓國의 電子工業 發展에 관하여 非常한 關心을 表明하였으며, 韓國의 先進技術導入方式, 勞動集約的인 工業形態로부터 技術集約的인 工業形態로 轉移하는 過程에 있어서의 問題點等에 관한 質疑가 活潑하게 進行되었다. 우리 代表一行은 아시아地域에서는 韓國의 電子工業이 日本 다음으로 發展하고 있다는 事實을 各國代表가 잘 認識하고 있는데 對하여 흐뭇한 滿足感을 느꼈다.

各國의 country report를 通하여 볼 때, 아시아地域의 모든 나라가 電子工業의 發展에 各별한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마다 그 樣相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直感할 수가 있었다. 各國의 country report에 대한 細密한 分析을 아직 하지 못하여 其 結果를 여기에 報告하지 못함을 매우 遺憾으로 生覺한다.

이날 午後에는 테헤란市內에 있는 Crown Jewels & Golestan宮殿을 訪問하여, 華麗한 옛宮殿, 玉冠, 衣裳, 陶磁器等을 觀覽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豪華燦爛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會議 3日째인 23日에는 各國代表는 (1)電子技術의 教育 및 訓練方案, (2)電子技術轉移方案, (3)電子工業發展에 있어서의 各國間의 協力問題의 3分科로 나뉘어져, 討論을 하는 syndicate meeting에 들어갔는데, 代表들은 제각기 自身의 立場을 強調하면서 熱면 討論을 벌였다. 특히 主權國인 이란을 비롯한 아랍國家, 印度, 인도네시아代表들은, AEU가 앞으로 언제까지 종래와 같은 成果없는 會議, 視察觀光等만 하겠느냐고 마져서 主權國인 日本代表들을 當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와 같은 趨勢로 보아 創立10周年이 되는 AEU는 무엇인가 方向轉換을 하지 않을 수 없는 時點에 到達하였다는 事實을 切感케 하였다.

第4日째인 24日에는 各國代表는 아침 일찍 호텔을 出發하여 Mehrabad空港에서 傳貫機에 搭乘하여 이란中部의 有名한 古蹟都市 Esfahn에 到着하여 古宮 및 寺院의 觀覽에 들어가 아랍特有의 이슬람敎型式의 雄大하고 精巧한 石造建物を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날 비로소 2~3時間의 自由時間을 얻어 市場구경도 하고, 펠샤카아페트等 간단한 선물을 사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질 무렵 다시 傳貫機에 搭乘하여 이란 南部의 古都 Shiraz에 到着한 다음 다시 버스로 約2時間가량 밤거리를 疾走하여, 밤늦게 Persepolis에 있는 Darish Hotel에 到着하였다.

第5日째인 25日 아침에 Darish Hotel을 출발하여 그곳에서 과히 멀지 않은 歷史遺跡과 廢墟로 유명한 Takhte-Djamshid의 觀光에 나섰다. 이 古蹟地는 이란에서 가장 有名한 곳으로 樹木 하나 없는 山을 背景으로 하여, 그 기슭의 넓은 언덕위에 솟아 있는 數없이 많은 巨大한 石材기둥이나 石壁上에 새겨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精巧한 彫刻은 燦爛한 옛 펠샤文化와 榮華를 자랑하고 있는듯이 보였다.

이날 午後에는 Shiraz市 近郊에 있는 獨逸과 이란의 合作會社인 Siemens EMD交換機工場을 視察했다.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거리를 다니는 이란의 女性들이 아이들을 託兒所에 맡기고 工場內에서 作業에 熱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工業化를 서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란國立의 電子研究所를 訪問했는데, 美國, 獨逸, 英國等地로부터 導入한 最新式實驗機具가 준비하게 設置되어 있는 것이

## AEU 總會議參加報告

몹시도 부러웠다. 그리고 한 實驗室에서 最新式 레이더의 製作研究를 熱心히 進行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이 研究所가 軍用電子機器의 生産研究를 主目的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即時 알 수가 있었다.

이날 午後 8時頃 傳貫機로 Shiraz空港을 出發하여 밤늦게 Tehran의 호텔에 到着함으로써 2日間の 視察旅行을 마쳤다.

會議第 6日째인 26日에는 AEC會議가 續開되었는데, Syndicate meeting의 結論을 誘導하는 討論이 계속되었다. 그 結論은 大體로 이란과 日本이 緊密히 連絡하여 앞으로 2年동안 前記 3分科에 關하여 具體的인 成果있는 일을 推進하자는 것이었으며, 必要에 따라 한번 정도 適當한 地域에서 中間會議를 갖자는 것이었다.

會議 마지막날인 27日에는 AEU總會가 열렸는데, 豫算決算承認過程에서 本人은 監事國인 韓國을 代表하여 質막한 監事報告를 했다. 그리고, 次期 2年間の 任員選出에 들어가 이란의 H.N. Nouri氏가 會長으로 選出되었고, 第 1副會長에는 우리 代表인 申龍徹副社長이 再選되었으며, 第 2副會長에는 인도네시아의 Soewidono氏가 當選되었다. 이날 會議에서 決定된 것은

會員國의 年會費를 \$ 1,000 以上으로 한다는 것과, 主權國은 會員國 參加代表에 對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往復航空料 및 滞在費를 支拂할 것을 義務化하지는 않는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次期會議의 主權國으로 豫定되었던 泰國이 國內事情으로 會議主權가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通報해옴으로써 混線을 빚게 되었다. 이 問題에 對하여 各國代表間에 幕後交渉이 活潑하게 展開되었는데, 모든 會員國이 次期會議를 韓國이 主權하도록 勸告해 보자는데 意見이 모아진 것이 分明하였다. 그리고 이의 強力한 意思表示의 하나로써 韓國代表인 申龍徹副社長을 副會長으로 再選시키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數日間에 걸쳐, 日本의 町田事務局長은 우리 代表에게 이 뜻을 傳하여 왔는데, 우리 代表는 歸國하여 要路에 建議해보겠다는 程度로 對答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長長 7日間에 걸친 會議는 幕을 내렸다.

끝으로 이 會議를 위하여, 每日같이 참으로 盛大한 晚餐會를 열고 기념郵票까지 發行하는 등 誠意를 다한 이란政府에 對하여 感謝하는 同時에 次期會議가 우리나라에서 開催되기를 懇切히 바라면서 會議參加報告를 끝맺고자 한다.